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에마(繪馬)란 무엇일까요?

에마의 기원과 변천

오랜 옛날부터 말은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살아있는 말을 신에게 산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세기 말엽이 되자 살아있는 말 대신에 흙이나 나무로 말 형상을 만들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8세기 후기가 되자 이러한 말 형상은 주술적인 의미를 띠었습니다. 이윽고 말 형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나무 판자에 그린 말인 '에마'를 신사에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에마는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의 이바 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8세기 후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무렵에 에마는 이미 서민들의 신앙의 도구로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4세기 중엽부터 17세기 초엽이 되자, 에마는 신사뿐만 아니라 사원에도 봉헌하게 되었으며 크기도 대형화 되었습니다. 그림도 무사·배·풍경·수확 문제 등 말 이외의 것이 출현하여, 예술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봉헌되는 에마가 많아지자, 에마를 보관하기 위한 건물을 짓게



▲가장 오래된 에마(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이바 유적 출토)
8세기 후기(가로 8cm, 세로 7.3cm, 두께 0.5cm)
(사진 제공: 하마마쓰시 박물관)



▲흙으로 만든 말(지바현 인자이시 기타노다이 유적 출토)
(지바현립 보소 후도키노오카 소장)

되었습니다. 시나가와구 내에는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도쿄도 시나가와구 하타노다이 3초메)에 에마를 보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근은 태평양 전쟁 중에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 '에마도(繪馬堂)'만은 피해를 면했습니다.

대형 에마가 발달하는 한편, 이전부터 존재한

작은 에마도 사람들 사이에 계승되어 마음을

담아 봉헌되었습니다.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의 에마를 보관하는 건물

큰 에마와 작은 에마

일반적으로 긴 변이 대략 30cm 보다 크고, 액자처럼 거는 에마를 큰 에마, 긴 변이 30cm 보다 짧고, 끈을 달아 매는 형식의 에마를 작은 에마라고 합니다.

큰 에마는 봉헌하는 자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동시에 그림 소재도 당시 사람들의 소망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분석하면 사회 정세의 변천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 화가가 그리는 경우가 많아, 미술적 가치가 높은 에마도 많이 있습니다.

작은 에마에는 서민들의 절실한 소망이 담겨 있고, 봉헌자에 의해 다양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중에는 수수께끼, 고로아와세(어떤 글귀의 어조에 맞추어 뜻이 다른 글귀를 만드는



▲대형 에마(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소장, 시나가와구 지정 문화재)

말장난) 등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대의 에마

작은 에마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취급되어 봉헌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면 처분하는 경우도 많아, 남아 있는 것은 적습니다. 한편, 큰 에마는 하타가오카 하치만 신사, 도고시 하치만 신사, 가이운지 절 등 많은 절과 신사에 남아 있습니다. 큰 에마는 1910년대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했으나, 태평양 전쟁 중에는 전승을 기원하기 위한 에마가 출현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 생활이 안정됨에 따라 에마는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봉헌자가 직접 에마를 만들었으나, 신사와

절에서 에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월이면
그 해의 십이간지나 말, 보물선 등이 그려진
다양한 종류의 에마에 교통안전, 장사번창,
합격기원 등의 소망을 적어 봉헌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획일적이 되어 옛날처럼 서민 생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에마에 소망을
담는 이들의 마음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고시 하치만 신사의 에마